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6.불교-이슬람 41년 전쟁

바미얀대불이 파괴된 지 한달 후 나는 실크로드 지역을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본 돈황을 기점으로 한 서쪽지역, 즉 신강자치구의 투르판, 하미, 호탄, 쿠챠, 카쉬가르는 철저히 이슬람권이었으며, 불교는 황량한 타클라마칸사막의 모래 속에 덮인 유적으로만 남아있었다. 오아시스 도시마다 불교왕국이 찬연한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꽃피우던 불교시대는 역사의 신기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실크로드 간선의 불교왕국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슬람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인가. 지금도 숱한 성보문화재들이 전 세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옛 불교왕국 호탄(지금의 신강자치구 서남부 和田市 일대)의 경우만 살펴보자.

9세기 후반 카라한 왕조가 중앙아시아에서 흥기하자 불교신도들도 그의 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10세기 초 카라한 왕족의 일원이었던 사툭 이 칸의 지위를 탈취하여 사툭 부그라 칸이라고 칭하면서 이슬람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불

칼날과 창끝 앞 강제 개종 당했다

교도와 기독교의 네스토리안 신도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강요한다. 955년 혹은 956년 사툭은 고창(투르판)의 위그루 왕국과 전쟁 중에 죽고 그의 아들이 칸의 지위를 계승하여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를 계속 진행한다.

960년 20만명의 투르크(突厥)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뒤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961년 혹은 962년 불교국가 호탄을 정복하는 성전을 시작한다. 호탄은 수차례 세사람의 왕자와 승려를 감숙성의 돈황과 송나라에 파견하여 이슬람과의 전쟁에 필요한 후원을 얻어 카라한 왕조에 대항하면서 카쉬가르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점령이 10세기 불교와 이슬람간에 벌어진 최대의 종교전쟁의 원인이 되어 41년간의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

펠리오가 수집한 돈황 문서 제5538a호 〈우전왕위지서랍여사주대왕조원충서(于闐王尉遲徐拉與沙州大王曹元忠書)〉에 의하면, 969년 7월 호탄군대는 카쉬가르를 공격하여 그곳에 지방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데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조원충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호탄왕국의 시도는 카라한 왕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돈황 문서의 기록처럼 '아랍인들이 이미 바람같이 사라져 버려' 세워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9년 후 이슬람군은 카쉬가르를 다시 수복한다. 이슬람군의 장군 카디르칸 유숩은 4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카쉬가르로 진군하여 주민들에게 "이제부터 그대들은 이슬람에 귀의하여 참된 주를 기쁘게 하라."는 포고령을 내리자 주민들은 이슬람군의 칼날과 창끝 앞에서 강제 개종을 당하고 말았다.

이슬람군은 계속 동진하여 불교왕국 호탄국과 결전을 벌이게 된다. 1012년 이슬람군에 포위된 호탄왕성은 함락되고 왕이 전사한다. 이슬람의 전설에 의하면 호탄이 함락된 후 호탄의 잔여병력들은 동쪽으로 후퇴하여 산성을 쌓고 저항하였으나 강력한 이슬람군의 공세에 밀려 곤륜산을 넘어 티베트로 후퇴하다가 추위와 기아로 전멸하였다는 불교왕국 호탄군의 비극적인 최후가 전해진다. 이슬람학자 마흐무드 알 카시가리가 1075경 편찬한 〈디반 루가트 르크〉에 실린 "우리들은 홍수처럼 빠른 물결로 그들의 성시로 쏟아져 들어가 사원을 파괴하고 불상에 오줌을 갈겼네"라는 구절은 당시 불교에 대한 이슬람군의 만행을 보여준다. 호탄함락 이후 불교사원들은 파괴되고 승려들은 살해되거나 지금의 청해성 시닝(西寧)과 티베트로 피신하였다. 호탄에 머물던 쿠챠, 위그루족 불교도들도 승려들을 따라 피신하였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타민족에 용해되거나 사라지고 말았다.

뉴욕테러사건 이후 국내의 이슬람 전공자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이 중앙아시아의 불교왕국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슬람이 미국과 어떠한 관계이든 그 평화의 종교라는 외침에는 절대 동조할 수 없게 된다. 바미얀대불의 파괴를 보라. 이슬람은 인도불교를 소멸시켰으며 중앙아시아의 불교를 면도칼로 밀어내듯 소멸시켜버리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한국의 불교도들은 너무 모르거나 옛 전설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경학회 회주

화합·상생으로 가는 길이 될것인가

물자 세상보기

미국의 對테러 전쟁 현실과 당위 짚어본다

정천구
정치학 박사
영산대 교수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요새는 인간의 마음 속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UNESCO) 헌장의 서문이 요즘처럼 절절하게 들리는 때도 없다.

연일 아프가니스탄의 공중에는 포탄이 쏟아져 내렸고 탈레반의 주요 거점들은 초토화되었다. 이어서 지상군 투입과 탈레반 병력에 대한 직접 공격 등 다음 단계의 군사작전을 앞두고 있다. 어쩌면 이 신문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이미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빈 라덴 보호의지를 거듭 밝히며 미국의 공격이야 말로 테러라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세계가 미국에 대해 성전(聖戰 jihad)을 벌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세계 여러 곳에서 반미(反美)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반전(反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 테러 전쟁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명분이 반 테러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대량살상을 금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오랜 규범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6천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반문명적 테러 행위를 응징하고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아랍 정책과 이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반미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10년 전 헌팅톤 교수가 예측하고 경고한 문명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문명충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미국이 테러를 응징하면서 이슬람 종교나 이슬람 국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무척 고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전쟁이 테러에 대한 응징일 뿐 이슬람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중돼 왔던 미국의 중동정책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슬람 쪽에서도 합리적인 지도자와 국민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과 연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테러 조직과 그 배후 세력의 제거라는 반 테러 전쟁의 목적이 적은 희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성취될 수 있다면, 반미 항전에 이슬람 세계 전체를 끌고 들어가려는 탈레반 정권과 알카이다 조직의 성전(聖戰) 구호는 호소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성공여부는 미국이 얼마나 이슬람 세계를 성공적으로 포용하느냐에 있다.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 속에 평화는 없다.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를 위협하는 자들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반 테러 전쟁을 정당화 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작전명이 "항구적인 자유"(Enduring Freedom)라고 하면서 미국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무차별 테러공격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반테러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전쟁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자를 추적'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보다 더욱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왜 그들이 미국에 대한 자살공격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살펴 그 원인치유에 노력하는 일이다.

미국은 아랍세계의 이익과 자존심을 손상시켜온 중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첨단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국가이익과 서구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외교정책 전반을 재고하여 다른 국가의 이익과 다른 문명권의 가치도 함께 존중하는 화합과 상생의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테러를 낳게 한 증오심을 잠재우고 미국이 평화적인 세계 건설에 있어서 자신의 지도력을 확립하는 길이라 본다.

'서장' 통한 선 공부 ㉝

왕장원(往狀元)에 대한 답서(2)

다를 것도 없고 같을 것도 없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것인데도,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학문을 삼고 격물(格物)과 충서(忠恕)와 일이관지(一以貫之) 등으로 도(道)를 삼으니, 마치 수수께끼놀이를 하는 것 같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으로써 여래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고 석가세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와 좋고 나쁘고 손해보고 이익되는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인은 바로 성(性)의 인이요, 의는 바로 성의 의요, 예는 바로 성의 예요, 지는 바로 성의 지요, 신은 바로 성의 신입니다…. 만약 인의예지신의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격물과 충서와 일이관지도 그 속에 있습니다. 승조(僧肇)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학을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捨敎入禪)' 고 하여, 언어로 된 가르침을 버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선(禪)에 들어가는 것이 곧 선 공부라고 한다. 또 '선은 교 밖에 따로 전한다(敎外別傳)' 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不立文字)' 하여 선 수행은 어디까지나 선수행이고 교학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교학의 연구일 뿐이라고도 말한다. 또 학문은 이론적 관념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선 수행과는 그 범주가 달라서, 학문과 선 수행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제 공부에 입문한 학인(學人)의 입장에서는 일면 타당한 견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학문적 연구란, 관념들을 도구삼아 이리저리 추측하고 맞추어보아서 그럴듯한 관념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분명 자신과 세계의 본성(本性)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념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마음의 본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선 공부이므로, 관념의 테두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마음을 그리는 것으로는 선 공부를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차별적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선이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세계의 공통되고 유일한 바탕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공부란 이 공통되고 유일한 바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이 공통되고 유일한 바탕에 성(性)이니 도(道)니 선(禪)이니 마음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 즉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일이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관념적이든 실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라도 모두 성(性) 혹은 도(道)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수행은 별개가 아니라 성(性)일 뿐이며, 교(敎)와 선(禪)이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사교(捨敎)와 입선(入禪)이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문자(文字)와 불립문자가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학문과 수행이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관념과 실재가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선이니 도니 성이니 하고 말하는 것도 성일 뿐이며,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성일 뿐이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성일 뿐이며, 성이니 무어니 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일 뿐이며, 성일 뿐이라고 하는 것도 성일 뿐이다. 이렇게 알면 다를 것도 없고 같을 것도 없어서, 다만 이럴 뿐이다.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말을 듣되 그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말이 나오는 순간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글을 보되 그 글의 관념을 따라가지 않고 글이 보이는 순간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깨어 있거나 잠자거나, 늘 지금 여기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잠과 깸에 속지 않는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흔들리지 않는 초발심으로 정진하는 지도자

제3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3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흔들리지 않는 초발심으로 정진하는 지도자"라는슬로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가 창립하지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열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생각하던 처음 발심하였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 여러분!

다시금 초발심을 바로세워 불국토를 향한 정진의 장에서 원대한 발원을 하여봅시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연수회 안내

■일 시 : 불기 2545년 11월 10일(토) 오후4시~11일(일) 오후1시(1박2일)
■장 소 : 경주온천관광호텔
■연수참가비

구 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비 고
미 리 접 수	40,000원	50,000원	레크리에이션전문과정
당 일 접 수	45,000원	55,000원	자격검정비30,000원별도
제주도,울릉도,군종병	30,000원	35,000원	※해외거주자는 무료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레크리에이션CD), 어린이법회지침서
■접수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sesag.or.kr.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08-4571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 사무국(051)808-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2) 송금계좌: 우체국 601310-01-002215[예금주: 대불어]
다. 접수기간
11월 3일까지

주요강의내용

구분	기 본 과 정	전 문 과 정	
		레크레이션(2과정)	상담교육(2과정)
대상	구 분 없 음	31차 연수회 1과정 이수자	31차 연수회 1과정 이수자
방향	어린이법회 지침서의 활용	전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양성	전문 상담 지도자의 양성
교육내용	· 특성화된 법회의 소개 · 특별법회의 활용 · 법회는 이렇게 합시다.	· 친교프로그램 · 우리놀이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 분위기 집중 게임과 팀게임	· 인간으로서 나는. · 불교어린이지도자로서 나는. · 내게 아이들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 자신과 친구의 장점 찾기 · 문장완성하기 · 자비관과 마무리.
특전	기본과정 이수 인정하며 이수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 됩니다.	1과정, 2과정 및 소정의 자격검정을 이수하면 (사)한국여가교육협회가 인정하는 레크리에이션 2급자격증이 수여됩니다.	1과정, 2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 레크리에이션 1,2과정 이수자는 연수당일 자격검정이 있습니다.

주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 철오, 회장/정여, 상임부회장/운성, 부회장/각만 · 덕신 · 덕진 · 무등 · 심산 · 영조 · 원행 · 원혜 · 인성 · 지광 · 지현 · 해관(가나다순), 감사/성형 · 박창식, 지도위원장/박보리성, 운영위원장 /김주환

지역문의처 ■서울 · 경기 (02)433-1506.7/유지선 사무국장 ■부산 (051)818-7187/부산지구 사무국 ■대구 · 경북 016-505-3143/김청중 사무국장 ■대전 · 충남 011-9804-5955/김선임 사무국장 ■경남 (055)545-9599/최미영 사무국장 ■제주 019-9660-9583/이춘숙 사무국장 ■울산 (052)258-9944/정토사